

올해 5공장 본격 가동, ADC 생산... '글로벌 초격차' 수성

〈항체·약물접합체〉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전·로드맵

18만 리터 규모 5공장 4월 완공
2032년 '제2 바이오캠퍼스' 건설
2027년 준공 목표로 6공장 증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에서 행사 핵심 무대인 '그랜드 볼룸' 무대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 비전과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 무대는 주최 측이 초청한 기업 가운데 선별된 27개 기업만 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발표 순서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일라이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들과 함께 예정됐다.

이날 발표 무대에 오른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공장 건설, 포트폴리오 강화, 지난 2024년 기록한 사상 최대 실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는 5공장 본격 가동, 항체·약물접합체(ADC) 생산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



지난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의 핵심 무대인 '그랜드 볼룸' 무대에서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 비전과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4월 5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공사기간을 35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경쟁력에 격차를 벌린 것이다. 특히 해당 공장은 18만 리터 규모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인 총 78만4000L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확보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부터 지

난해 말 인천 송도에 완공한 ADC 의약품 전용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한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2년까지 '제2 바이오캠퍼스' 건설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6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6공장은 5공장과 동일 규모인 18만 리터인데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생산능력을 96만4000리터로 확장해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를 유지한다

는 전략이다.

생산 능력뿐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립 13년 만인 지난 2024년 글로벌 규제기관에서 누적 제조 승인 건수 340건을 올리고, 99%에 달하는 배치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고성장을 이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위탁개발(CDO) 관련 신규 플랫폼도 잇따라 선보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에스-텐시파이, 에스-에이퓨초 등

5개의 신규 플랫폼 및 솔루션을 추가해 총 9개의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항체, 완제의약품, mRNA 등에서 항체·약물접합체(ADC)를 비롯한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과 같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생산 영역을 넓힌다. 향후 완전 자동화된 사전충전형주사기 생산에도 적극 대응한다.

존립 대표는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사업 비전과 로드맵에 발맞춰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4년 연간 주주 금액 5조원 시대를 열었고, 현재까지 누적 주주액도 176억달러를 넘겼다. 2024년 기준 연간 매출액도 전년 대비 15~20% 증가할 전망이다. 가운데, 이는 상장 연도인 2016년 매출 2946억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고성장이란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설명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이폰SE4 등 공개 임박?... 애플, 점유율 되찾기 박차

3월이나 5월 아이폰SE 공개할 듯
초슬림 '아이폰17에어' 상반기 출시
프로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 예상



내년도 아이폰17 에어의 출시를 앞두고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IT팁스터(정보유출자) 애플트랙이 공개한 아이폰17 에어 예상 디자인. /애플트랙 유튜브

애플이 올 상반기 '아이폰SE4'와 함께 '애플17 에어'를 연이어 공개하며 점유율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자랑했지만 최근 중국서 판매가 급감하면서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때 지위를 감췌던 아이폰SE 시리즈 신제품은 물론 애플 17에어까지 출시해 다시 입지를 되찾을 것이라 분석이다.

15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아이폰 SE의 새로운 버전이 오는 3월 또는 5월에 열린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새로운 아이폰은 코드명 '로마(Roma)'로 알려졌다. 아이폰 SE4와 같은 가능성이 유력하다.

블룸버그 기사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아이폰SE가 올해 초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해 왔다. 아이폰SE4는 아이폰 14의 본체를 채택해 홈 버튼을 없애고

상단에 노치가 있는 옛지 투 옛지 화면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이폰14와 달리 아이폰16E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8GB RAM과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애플 전문 분석가 귀밍치도 자신의 블로그 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귀밍치는 아이폰SE4가 올해 상반기 중반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IT매체 맥무머스는 아이폰SE 4의 이름이 '아이폰16E'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애플은 올 상반기 초슬림 모

델 '아이폰17 에어'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이폰17 에어는 프로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원가 절감을 위해 단순한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폰17 에어 가격은 아이폰16프로 맥스 가격인 1200달러(약 174만원)보다 비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낮은 실제 899달러(약 130만원)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이폰16 플러스와 비슷한 가격대다.

아이폰17 에어는 애플이 역대 출시한 아이폰 모델 중 가장 얇은 스마트폰이다. 폰아레나에 따르면 아이폰17 에어의 두께는 6.25mm로, 아이폰16 프로 두께인 8.25mm보다 2mm 더 얇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아이폰17 에어는 2014년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6의 두께인 6.9mm보다 얇아 가장 슬림한 아이폰이 된다.

이에 프로 모델에서 제공하는 고급 기능은 일부 탑재되지 않지만 가격적으로 달라진 디자인만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애플이 올 상반기 신형 스마트폰을 대거 내놓는 이유는 최근 떨어진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 선두를 굳건히 유지했지만 중국 시장은 물론 전체 시장에서도 출하량이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8.7%로 1위, 삼성전자는 18.0%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각각 전년 대비 1.4%포인트(p), 1.5%p 감소한 수치다.

귀밍치는 지난해 12월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출하량이 10%에서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전체 출하량이 전년 대비 정체된 상황에서 아이폰의 출하량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귀밍치는 올해 4월을 전후해 아이폰SE4를 출시하더라도 상반기 출하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샤오미코리아 스마트폰·TV 등 신제품 국내 출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샤오미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다양한 신제품을 공개했다.

15일 서울 중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샤오미코리아는 ▲스마트폰 ▲TV ▲웨어러블 기기 ▲보조배터리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신제품을 소개했다.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기종인 '샤오미 14T'와 내구성을 강화한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 2종을 공개했다.

샤오미 14T는 독일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와 공동 개발한 카메라를 탑재,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색감과 깊이감 있는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구글과 협업한 '서클 투 서치'로 앱 전환 없이 화면 속 모든 정보를 즉시 검색할 수 있으며, 실시간 통역 기능을 제공하는 'AI 통역사',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AI 리코더', 촬영된 영상을 편집해 숏폼 콘텐츠를 만드는 'AI 필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가격은 12GB+256GB 모델은 59만 9800원, 12GB+512GB 모델은 64만 9800원이다.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는 보급형이면서도 뛰어난 내구성과 200MP(메가 픽셀) AI 카메라가 강점이다. 0.8mm 두께의 메인보드와 고강도 알루미늄 복합프레임을 갖췄으며, 샤오미 14T와 마찬가지로 AI 기반 촬영·편집 기능도 탑재돼 있다. 가격은 8GB+256GB 모델이 39만9300원, 12GB+512GB 모델은 49만9400원이다. /이혜민 기자 hyem@

트럼프 "관세청 설립, 취임 첫 월요일 세금 징수"

"美와 무역, 이익얻는 이들에 세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징수하는 "관세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온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취임 뒤 첫 월요일부

터 관세청이 관세 징수를 시작할 것"이란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이 실행되면 연간 수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정부 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형편없는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 경제는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한 반면 스스로에게는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를 바꿔야 한다. 관세 등 모든 외국 출처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ERS를 신설할 것임을 발표했다"며 "우리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의회와 대통령이 설립한 기구인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이

관세를 담당한다. 관세청이 신설되면 CBP와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2023년 800억 달러(약 117조 원)의 관세를 거뒀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물가 상승을 자극해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길 것으로 지적해왔다.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가 미국 가계에 세금을 매기는 셈이 될 것이라 주장도 나왔다.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관세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승일 기자 won@